

[새 사상 새 로정 인술]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경제총량 14 조원 돌파



향항—주해—오문대교 / 자료사진

습근평 총서기는 광동—향항—오문 대만구를 새 발전 구도의 전략적 지점, 고품질 발전의 시범지, 중국식 현대화의 선도지로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2023년부터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발전계획 요강>이 깊이있게 실시됨에 따라 '한개 지명점, 두개 지역'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중심으로 대만구 경제총량은 14 조원을 초과하여 전국 0.6% 미만 국토면적에서 전국 9분의 1의 경제총량을 창출함으로써 종합실력이 한단계 더 상승했다.

올 청명 연휴는 향항과 오문의 공휴일과 맞물리며 향항—주해—오문대교의 주해 고속도로 통상구에서 '복상' 열기가 이어졌다. 원적이 불산시 삼수인 오문 주민 정씨는 "올해 청명 연휴 한 지역 번호판 차량으로 두 지역을 오가니 청명절 성모가 아주 편리했다."고 말했다. 향항 주민 엄씨는 복상 소비가 목적이 아니라 내지에서는 다른 성의 특색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향항 차량 복상', '오문 차량 복상' 등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향항과 오문 주민들의 출행 시간과 비용이 일층 더 낮아졌다. 3월 28일부터 4월 5일 0시까지 향항—주해—오문대교 주해 고속도로 통상구의 려객과 차량 통행량은 5일간 각각 연 10

만명, 1만 6,000대를 초과했다.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망은 대만구의 통합 발전을 가속화했다. 광동성교통운수청 총서기 리정은 '개도 우의 대만구', 대만구의 세계급 공항군과 항구군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광동—향항—오문 '1시간 생활권', 대만구와 광동성 동부, 서부, 북부 지역 2시간내 련결 목표가 점차 실현되고 있고 나아가 대만구지역 안팎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 련결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3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광동성을 시찰할 때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건설을 광동성 개혁개방 심화의 큰 기회이자 중요한 임무로 삼고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일체화 발전에 힘입어 광동성의 한 신에너지 자동차주식회사는 향항을 세계화 전략의 핵심 중추로 간주하고 올해 향항에 1,000V 중전소 3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회사 부사장 초용은 "우리는 광동—향항—오문 대만구이라는 지역적 우세를 갖고 있다. 향항은 세계 최강의 과학기술혁신 환경, 자유무역과 금융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향항 과학기술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항을 기반으로 중계무역을 추진해 세

계 자본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심수 광명과학도시에서 2단계 슈퍼컴퓨팅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래년말에 가동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대규모 과학컴퓨팅, 산업컴퓨팅, 전문 빅데이터 처리, 지능형 슈퍼컴퓨팅 혁신 서비스가 실현된다. 심수 광명구발전계획국 장동동 부국장은 슈퍼컴퓨팅 건설이 완공되면 연산력은 초당 200경차에 달하며 이 같은 연산력 자원은 미래 인공 지능, 약물 선별, 기타 산업의 디지털 화 발전에 강력한 연산력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근년간 광동—향항—오문 3개 지역 협동에 의존해 대만구 과학기술혁신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7만 5,000개 이상의 국가급 고도신기술 기업을 보유하게 되었고 '심수—향항—광주' 과학기술 집적(集群) 단지는 4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중대 협력 플랫폼은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매개물이다. 올해 3월 1일 0시부터 홍콩 광동—오문 심중협력구는 화물 '1선' 개방, '2선' 통제, 인원 출입 편리화 등 분할관리 정책을 실시했다. 한달간 협력구 기업과 대중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반 정책이

점진적으로 출범되고 있고 세관은 황금통상구를 통과하는 면세, 보세 화물의 신고 항목을 60%나 줄였다. 황금세관 설립 부관장은 다음 단계에 세관은 계속해서 감독관리제도 혁신을 심화하고 황금협력구에서 학습, 취업, 창업, 생활하는 오문 주민에 더 많은 편의 조건과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고 경제활력이 가장 강한 지역중 하나인 대만구의 과학기술 창조 산업은 빠른 발전과 지속적인 확장, 협동과 융합의 심층 발전으로 향항과 오문이 국가의 발전 대세에 융합되도록 힘있게 추진했다.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건설은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계획, 포치하고 추진한 중대한 국가 전략이다.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건설은 한창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극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광동성 상무부성장 장호는 총서기가 부여한 광동—향항—오문 대만구의 '한개 지명점, 두개 지역'이라는 새로운 지위와 방향에 따라 향항, 오문과 손잡고 광동—향항—오문 대만구를 세계적인 도시권, 최고의 개발지역으로 적극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인민방송

조선중앙통신:

조선 '조중 친선의 해' 마크 제정

올해는 중조 외교관계 설정 75돐 및 '조중 친선의 해'이다. 이에 조선은 '조중 친선의 해' 마크를 제정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에는 조선의 람홍색 국기와 중국의 오성붉은기, 외교관계 설정 75돐을 상징하는 숫자 '75'와 '조중 친선의 해'라는 조선 글과 '조중 친선의 해'라는 중문 문자가 새겨져있으며 조선 평양의 개선문과 중국 북경의 천단 기년전이 형상되어있다. / 신화넷



외교부:

중국과 동남아 국가는 좋은 이웃, 친구, 파트너

외교부 대변인 모병은 8일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과 외교부장들의 잇달은 중국 방문은 관련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4월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고위급 인사 중국 방문 붐이 일어났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다. 외교부장 왕의는 4월 첫째 주에 광서에서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장 살름싸이, 동티모르 외교부장 벤디투, 베트남 외교부장 부이 타잉 선과 각각 회담했다. 이번 주에는 타이 공주 시린톤, 베트남 국회의장 브영 딘 후에, 싱가포르 부총리 행 스위 키티 중국을 방문했다.

모병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변은 중국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운명을 같이하는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이다. 중국은 시종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친성혜용(亲诚惠容: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나누고 포용하다)의 주변국 외교 리념에 따라 주변국과 우호 협력을 펼쳐 리해와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공동히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모병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4년 연속 서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올 1월—2월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총액은 9,93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중국—라오스 철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 조성한 중국 광서 흡주(钦州) 산업단지과 말레이시아 관단(关丹) 산업단지 등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는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중국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타이는 상호 비자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아세안 인문교류의 해'를 계기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들은 량국 국민들이 서로 알고 친해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모병은 "올해는 평화공존 5항 원칙이 발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는 주변국들과 함께 평화공존 5항 원칙을 계승·선양하고 친성혜용 리념을 실천하며 리의 융합을 심화하고 평화롭고 평안하며 번영하고 아름다우며 우호적으로 공생하는 아시아 터전을 건설하기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인민일보



미국 언론:

록색 수출 방해는 백년 경제학원리에 위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9일 논평에서 "미국은 중국 신에너지 제품의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이런 작법은 경제학원리에 위배되며 전세계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은 미국 재정부장 엘리언이 최근 중국 신에너지 업체를 "생산능력 과잉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발언은 200여년간 이어온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중의 하나인 비교우위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리론에 따르면 만약 한 나라가 더 낮은 원가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관세 장벽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수입해야 하며 동시에 보다 비교우위를 가진 자신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에너지 생산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일단 중국의 신에너지산업에 대해 언급할 때는 또 '생산능력 과잉'이라며 질책한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설법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은 중국 신에너지 업체의 생산능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유럽과 미국 관련 업체 기업의 전환 부실 등 요소와 관련된다.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강력한 시장 수요를 보았기 때문이지 '불공평한'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록색 승격 보호주의는 대중들이 가성비가 높은 중국의 신에너지 기술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것이며 전세계 록색 전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 전세계에 있어서 '보호주의의 재난'이 될 것이다.

/ 신화넷

상무부장 왕문도:

중국 전기차, 보조금으로 경쟁 우위 확보한 것 아니다



1월 20일, 해남성 해구시의 한 급속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신에너지차.

/ 신화넷

중국 상무부 부장 왕문도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유럽 중국자본 전기차 기업 원탁회의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 완비된 생산·공급 사슬, 충분한 시장 경쟁을 통해 빠른 발전을 이룬 것이지 보조금에 의존해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며 '과잉생산'에 관한 미국·유럽 등의 지적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왕문도는 중국 전기차산업의 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록색·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기업의 합법적 권의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문도는 외부의 도전과 불확실성 앞에서 기업은 내공을 쌓고 혁신 드라이브(驱动)를 견지하며 리스크(风险) 관리를 강화하고 록색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지 기업

과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을 함께 모색해 글로벌 록색 전환의 참여자이자 기여자로서의 립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련맹 중국상회를 비롯한 지리자동차, 상해자동차, 비야디, 냉덕시대 등 10여개 중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중국 기업의 글로벌 배치 최적화, 중국-유럽 전기차 산업 실무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 기업 대표들은 유럽 내 투자·운영 상황과 유럽련맹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대응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방협력을 고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실현해 무역마찰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유럽 파트너와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호혜상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신화넷